

OCIO 시장의 과점 문제

양희진*

외부위탁운용관리(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OCIO)는 기관투자자 등 자산 규모가 큰 자산운용자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외부기관에 자산을 위탁해 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14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시기금이 OCIO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OCIO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2022) 보고서¹⁾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국내 OCIO시장 운영규모는 132.2조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공격기금이 85%(112.3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 정부 연기금투자플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OCIO도입 확대에 대한 기대와 증권사들의 진출로 앞으로 국내 OCIO 시장 규모는 1,0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표 1> 국내 OCIO 운용 현황²⁾

관할기관	기금명	주관운용사	운용규모	선정일자
기획재정부	공적연기금투자플	삼성자산운용	27조 원	2021년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	9조 원	2021년 1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시기금	미래에셋자산운용	20조 원	2022년 4월
		NH투자증권	20조 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삼성자산운용	22조 원	2019년 3월
	고용보험기금	한국투자증권	9조 5,000억 원	2019년 3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KB증권	2,000억 원	2021년 8월
한국증권금융	민간연기금투자플	한국투자신탁운용	1조 7,000억 원	2015년 5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신한자산운용	1조 3,000억 원	202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대체투자부분	KB자산운용	7,000억 원	2020년 5월
		신한자산운용	7,000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사업 성과보상기금	NH투자증권	1조 3,000억 원	2020년 10월
서민금융진흥원		NH투자증권	1,200억	2022년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	1,200억	

논문접수일 : 2022년 11월 15일 논문수정일 : 2022년 12월 4일 논문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5일

본고는 양희진 교수의 자료와 연구 노트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고 준용하였다.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글로벌경제통상학과 조교수, E-mail: yhj427@dongguk.ac.kr
1) OCIO 시장 성장 가능성과 완전위임 확대 필요성(2022,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2, 남재우).
2) 공개된 국내 언론보도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OCIO 시장은 국내 주요 운용사(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시장 점유율은 95%에 육박한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으로 OCIO 시장규모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OCIO 전담 사업부를 신설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등 OCIO 시장의 무한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후발 운용사들은 운용 보수율(평균 4~5bp)에 따른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트랙레코드를 쌓고 운용 역량을 키워 앞으로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주간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기존 운용 경험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후발 운용사들의 진입장벽³⁾이 높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는 2013년부터 운용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복수 운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운용보수, 인력 충원부담, 연기금투자플 심사기준⁴⁾ 충족 등의 문제로 중소형 운용사는 물론, 대형 운용사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⁵⁾ 2022년 9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선정되어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OCIO 시장도 국내 대형 운용사간의 경쟁이 되고 있다. 즉, 국내 OCIO 시장의 규모가 거대해지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과점 형태로 시장이 고착화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2019, 2020)⁶⁾ 보고서는 국내의 OCIO시장에 소수의 대형기금만 참여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수의 중소형 자산보유자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과점시장의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부처의 거대 공적자금이 특정 자산운용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위험관리 측면과 운용의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점 시장 형태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갖도록 공적자금 OCIO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도적 개선과 제한이 필요하다.

첫째, 주간운용사 선정방식의 개편이다. 대부분의 공적자금 OCIO는 경쟁입찰 제도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평가 배점 중 70점을 차지하는 정성평가 항목은 운용보수율 적정성, 투자플 펀드 관리능력, 완전위탁형 기금관리 및 지원방안, 투자플 발전 및 기금지원방안으로

3) “1000조로 커진다는데..” OCIO 시장, 높은 진입장벽에 과점 논란, 2022년 9월 28일, 머니투데이.

4) 정량평가(운용자산, 인적자원, 재무안정성 등, 20점), 정성평가(투자플 펀드관리능력 등, 70점), 가격평가(보수율 수준, 10점)

5) “연기금투자플, 기준 맞출 ‘경쟁자’가 없다”, 2021년 10월 5일, 팍스넷뉴스.

6) 국내 OCIO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2019,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05, 남재우), 최근 국내 OCIO 시장 확대에 대한 소고 (2020,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0-21, 남재우).

구성된다. 항목 중, 대형 운용사에게 유리한 한 항목과 배점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하여 해당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후발 운용사와 중소형 운용사 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정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는 정부부처, 공기업의 기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적절한 운용규모 수준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제한을 통하여 특정 운용사나 몇몇 운용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복수운영제도의 확대이다. 하나의 기금을 최소 두 개 이상의 운용사가 운용하여 각 운용사의 운용실적을 비교를 통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앞으로 국내 OCIO 시장은 공적자금 뿐만 아니라 민간, 대학기금, 퇴직연금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공적 연기금 OCIO 참여 경험에 있는 운용기관이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선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간 자금 OCIO시장도 국내 주요 운용사가 선점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규모가 크고 운용 경험에 있는 운용사를 선호할 수는 있지만, 규모와 운용 경험이 곧 운용사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적 연기금 OCIO 제도를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트랙레코드를 쌓을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